

모든 수험생 마스크 착용 ... 책상 앞쪽에 가림막 설치

수능 시험장 달라진 풍경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이틀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코로나19 확산이라는 초유의 상황에서 치러지는 첫 수능인 만큼 수험생들이 기존과 같은 시험공부 마무리 전략 외에 건강관리와 안전 수칙에 힘써야 할 것으로 보인다.

마스크 착용 의무화와 가림막 설치에 따른 유의 사항 등 수능 당일 수험생들이 준수해야 할 방역수칙과 달라진 시험실 풍경을 미리 조망한다.

◇ 수험생 발열 있으면 마스크 KF80 이상 착용=모든 수험생은 마스크를 착용하고 오전 8시10분 이전까지 시험실에 입실해야 한다.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시험실 입실 자체가 안된다.

교육 당국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허가한 의약외품 마스크(KF90, KF80 등) 사용을 권장하고 있고, 벨브형 마스크, 방사마스크 사용은 안 된다.

시험 당일 발열 등 코로나 유증상 수험생과 자가격리 수험생은 KF80 이상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특히 모든 수험생은 오염, 분실 등에 대비해 마스크 여분을 지참하는 것이 좋다.

시험실에서는 항상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고, 감독관이 수험생 신분을 확인할 때와 점심시간에는 마스크를 벗을 수 있다.

코로나19 확진자·자가 격리자·유증상자 구별 별도 시험실 마련
매 시험시간 시험실에 들어올 때는 반드시 손소독제로 소독 해야.

◇ 확진자·자가 격리자 수능일 전에 방역당국이 결정=확진자, 자가격리자, 유증상자를 위한 별도의 시험실이 마련된다.

확진자와 자가격리자는 수능일 전에 방역 당국에 의해 결정된다.

시험실 입실 전에 발열검사를 거쳐 37.5도 이상이거나 심한 기침 등을 할 경우 유증상자로 분류돼 별도의 시험실에서 시험을 치른다.

시험 도중 발열과 기침 증상이 있는 수험생도 별도의 시험실로 옮겨 시험을 볼 수 있다.

시험 전날 체온이 높게 나온 수험생은 종합병원장 등 의사 소견서를 받아 시험 당일 제출하면 별도의 시험실에서 시험을 볼 수 있다.

확진자 시험실은 광주 2개(각 4인용)·전남 10개, 자가격리자 시험실은 광주 5개·전남 21개, 유증상자 시험실은 광주 190개·전남 138개가 마련됐다.

◇ 도시락은 각자 준비해 제자리에서 먹어야=이번 수능에서 '이색적인 풍경'은 책상마다 가림막이 설치되는 것이다.

교육 당국이 마스크 착용으로 침방울을 통한 감염 전파를 완전히 차단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가림막은 수험생의 책상 활용도를 고려해 앞쪽에만 설치된다. 빛 반사가 최소화하도록 투명하지 않은 재질로 만들어졌다.

가림막은 하단으로 시험지(A3 크기)가 통과할 수 있도록 제작됐다.

매 시험시간 시험실에 들어올 때는 반드시 손소독제로 소독을 해야 한다.

또 점심은 도시락을 지참해야 한다. 여럿이 함께 식사할 수 없고, 자기 자리에서 이동하지 않고 먹어야 한다.

시험장 내에서 기침 또는 재채기를 할 때는 휴지, 손수건, 옷소매 등으로 가리는 등 기침 예절을 지켜야 한다.

정훈탁 광주시교육청 수능 담당 장학사는 "수험생들은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하고, 달라진 시험실 풍경을 미리 알아보고 시험을 치르는 게 좋다"며 "수능 당일까지 컨디션을 잘 유지해서 좋은 결과를 내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대성 기자 bigkim@kwangju.co.kr

코로나19 대응 수능 응시자유의사항

- 수능 전날 진단검사 시 보건소 이용(우선 검사 및 당일 결과 통보)
- 수능 당일 입실 오전 6시 30분 ~ 8시 10분. 입실 전 체온 측정
- 신분 확인 마스크를 잠시 내려 감독관에게 본인 확인
- 점심시간 개인 도시락·음용수 지참 각자 자리에서 식사
- 예비소집일 직계 가족 및 관계 증명 가능한 지인 통해 수험료 대리 수령 가능
- 자가격리 수험생 수능 응시 별도 시험장에서 응시
- 자료/교육부 연맹업자

확진자·자가격리자

- 확진·격리 통보 시 보건소에 수능 응시지점 정보
- 예비소집일 직계 가족 및 관계 증명 가능한 지인 통해 수험료 대리 수령 가능
- 자가격리 수험생 수능 응시 별도 시험장에서 응시

언택트 음악회 '제17회 전남교육음악제' 개최



33명의 음악교사들이 '합창'을 위해 온라인으로 노래연습을 하고 있다. <전남중등음악교육연구회 제공>

전남중등음악교육연구회
7일 오후 2시 광양문화회관
유튜브 등서 실시간 관람

코로나19 사태 속 새로운 형태의 온라인 힐링 음악회가 개최될 예정이다. 주목을 끌고 있다. 지역 음악 교사 모임인 전남중등음악교육연구회가 오는 7일 오후 2시 광양문화회관에서 '전남도교육청 영상회의시스템'과 '유튜브 전남중등음악교육연구회 채널'을 통해 실시간 관람이 가능한 언택트 음악회 '제17회 전남교육음악제'를 개최한다.

'전남교육음악제'는 지난 2003년부터 전남 지역에 근무하는 음악교사들이 매년 각 지역을 순회하며 개최해오고 있는 음악회이다. 올해는 코로나19 대유행이라는 위기를 맞아 언택트 음악회로 준비했다. 이날 공연에는 현장연주와 사전에 제작된 영상이 혼합된 형태로 실시간 방영된다. 현장연주로 국악단 '진향'(이명훈·신승운·장혜운, 진도국악교사)이 연주하는 '신사랑'을 비롯해 피아노 이중주(범지혜·광양중·김효정 중등중교사)로 생상스의 '죽음의 무도' 등을 연주한다. 또 사전 제작 영상으로 현악 앙상블(한국창의예술고 학생연주단)이 비발디의 '세 대의 바이올린을 위한 협주곡'을 비롯해 아가펠라 '보이스 파

노라마'(대표 김수임, 마리아회교 교사)가 '아로하', '베토벤 메들리' 등을 선보인다. 특히 33명의 음악교사들이 함께 노래하는 '합창'은 근무 학교나 가정에서 각자 노래한 개별 영상을 모아 하나로 편집해 '혼성 4부 합창'으로 재탄생된다. 이문정 전남중등음악교육연구회 회장은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수고하시는 모든 분들과 온라인수업·오프라인 등교수업을 병행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고 있는 교사·학생·학부모들에게 전남의 중등 음악선생님들이 위로와 격려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 이번 음악회를 준비했다"고 밝혔다. /김대성 기자 bigkim@kwangju.co.kr

"서툰 한국 유학 생활 선배와 함께해요"

광주대 선배 유학생, 후배들 학교 적응 돕기 프로젝트

광주대학교(총장 김혁중)에 재학 중인 선배 유학생이 후배들의 대학 생활을 돕기 위해 팔을 걷어 붙였다.

광주대 국제협력처는 선배 유학생이 후배 유학생에게 조언과 도움을 주는 2020학년도 2학기 유학생 도우미 프로그램을 시행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토픽(한국어능력시험) 4급 이상 유학생 1명이 토픽 급수가 없는 유학생 2명과 팀을 이뤄 수강 신청 및 강의, 시험 준비 등을 돕는 것이다. 팀은 국적이 같은 선·후배로 구성됐으며, 총 4팀이 참가해 진행됐다. 이와 함께 참여 학생들의 활동 내용과 느낀 점 등

을 담은 영상을 공모, 우수 팀을 선정해 선물을 증정했다. 1등 팀에는 중국 유학생인 오름비(경영학과·4)와 좌원원(경영학과·3년), 장염(한국어교육과·3년)이 차지했다. 특히 참가팀의 영상은 유학생들의 대학 생활을 돕는 교육자료로 사용할 예정이다. 어룡지 학생은 "팀장을 맡아 한 달여 동안 학습과 생활하는 경험을 나눌 수 있는 좋은 경험이었다"면서 "활동이 끝난 후에도 서로 도움을 주겠다. 학교가 이번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줘 감사하다"고 말했다. /최희중 기자 chae@kwangju.co.kr

승의과학기술고, 다문화가족 학생 스마트드론전자과 모집

광주 승의과학기술고가 내년도 특성화고 신입생 모집에서 다문화가족 학생(러시아 계열) 특별전형으로 스마트드론전자과(22명) 학생을 모집했다. 광주시교육청과 승의과학기술고는 올해 다문화 가정 학생들이 국가와 지역 내 산업 인력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전문 실무교육과 다양한 방과후 교육과정으로 조기 취업시킬 수 있는 교육네트워크를 구축하려는 데 뜻을 같이했다. 이를 위한 첫걸음으로 교육청과 학교 측은 스마트드론전자과 1개반을 다문화가족 학생 특별전형으로 신설하고, 최근 2021학년도 신입생 모집에 들어갔다. 첫 도전은 성공적이었다. 22명 모집에 22명이 지원했다. 일반 전형으로도 9명의 학생이 더 지원해

모두 31명의 다문화가족 학생을 모집했다. 다문화가족 학생들은 교육청과 학교의 전폭적인 지원도 받게 된다. 전체 교육과정에 걸쳐 러시아어 통·번역 교사의 통역이 이뤄지고, 교사가 학교에 상주해 학생들의 인성과 진로지도와 연계된 모든 활동에 함께 할 예정이다. 학생들 다수가 고려인마을에서 생활하고 있어 통학거리가 먼 점을 고려해 통학버스도 지원할 예정이다. 양승용 승의과학기술고 교장은 "다문화가족 학생 특별전형 신입생 모집을 통해 문화적 차이를 극복하고 나와 내가 함께 하는 교육공동체로 발돋움해 국제사회 미래 인재로 키우는 모범사례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대성 기자 bigkim@kwangju.co.kr

ESS시공전문기업

태양광발전소 부지·시설 고가매입

당사 및 당사관련사업소에서는
소형(100kW~1,000kW) 중형(1,000kW~3,000kW) 대형(3,000kW이상)의
태양광발전시설을 대량 매입중입니다

● 매매대상 ●

- 개발행위 허가전 발전소
- 개발행위 허가중 발전소
- 현재 공사중인 발전소
- 현재 운영중인 발전소
- 1차 FIT 종료중 발전소
- 곤충사육장 + 태양광
- 버섯재배사 + 태양광

선로 걱정 마시고 전하주세요!

당사에서는 **개발행위**(건축물 위 공작물 축조신고)를 **무료**로 해드립니다. (*건축물 구조진단 비용은 유료)

환경과에너지종합기술(주)
전기공사업면허 광주 제00988호

상
담
전
화

전국대표 1544-1926
010-7614-1055
010-2845-4754